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기

(히12:1~2)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이렇게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호로써 또 정당한 요청으로써 외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그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교회를 잘 보세요.
교인들, 특히 직분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의해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장로 안수집사 선거,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저런 남녀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것에 마음의 시선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마음의 시선이 이 세상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심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유일한 실현 가능성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만 믿음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 중단되면 믿음도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거든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쉽게 쉽게 불러대요.
이렇게 주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첫마디 부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냥 신! 영어에서 GOD에 해당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마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마디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공생애의 귀결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부름은 무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서 부르는데도 응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주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주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 잊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하고 나와요.
'이러므로'라는 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나열하고, 이렇게 허다한 구름떼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벗어 버려야 잘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수 있겠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거운 겁니다.
어떨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마음 바깥에 있으면 지구도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런데 깃털처럼 가벼운 것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금만금 무거워집니다.
로마가 사도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로마제국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 밖에 두었고 하나님만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으니까.
근데 법정스님이, 동양란 두 분을 얻어서 키우시다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무소유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양란 화분 두 개도 마음에 담으면 무거워집니다.
이 지구도 마음에 안 담으면 가벼워지는 것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니까.
근데 이 지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도 마음에 담으면 무거워집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다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5감각에 주어져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것들을 판단하는 순간에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얽매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모셔 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5감각에 주어지는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기의 실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왜 바라봐야 되는지, 삶의 어느 포인트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럴 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예수님 바라보기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바라보자! 바라보자! 구호를 아무리 반복한다 해도 이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러므로…' 하고 시작했잖아요?
'이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거론한 이유와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바라보기의 실제가,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시킬 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돼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사가 언급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연관 속에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원죄를 타고 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스스로 5감관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뼛속까지 침투된 인간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누군가 하면 아담 이후에 첫 번째로 거론 되는 인간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대상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슈가 뭡니까?
죄에요, 죄.
아담 타락 이전에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죄의 가능성만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 오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건데, 이 하나님 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양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양의 기름, 어린 양과 기

름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양의 기름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양을 죽입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나와 양을 동일시한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와 사상 속에서의 제사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양이 나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나에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나는 죽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드렸는데, 제사법에 보면 곡식을 갈아서 드리라 했어요.
이것도 곡식과 나를 일치시켜서, 동일시해가지고 죄인인 나는 완전히 갈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땅의 소산을 어떻게도 가공하지 않고 그냥 드려버립니다.
나를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판단하면서, 온갖 세상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따라서, 온갖 세상적인 소원을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제사는 나의 바람과 소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에녹은 뭐냐?
그렇게 죄인 됨이 죽을 때 에녹과 같은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어떤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벨의 제사가 나에게서 재현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에녹이 하늘나라로 들려올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함께 있음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벨의 제사가 적용이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에녹의 삶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은 뭡니까?
공생애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남아 있는 몸에 대해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구원의 역사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공생애의 삶이 되니까, 공생애의 주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을 본 뒤에라야, 병고치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공생애 예수님께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 승천의 예수님을 거치기 전까지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한한 뒤에라야, 공생애 때의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공생애 때의 예수님의 활동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먼저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과정이 있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도 노아에서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긍휼과 자비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활과 승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의 삶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 그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노아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예수 바라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실제로 효과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요셉의 얘기는 야곱에게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

보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노아의 단계까지 원리적으로 예수님의 바라봄의 의미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는 이삭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없으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약속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으로 접근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노아에게서처럼 펼쳐 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 나가시는 축복의 현실과 축복의 약속들의 실현들의 현장에서, 그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붙들릴까봐 걱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 버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만 모셔 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축복을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수많은 역사,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 지고 있는 많은 형통, 성공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지속 될 수가 없고,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뺏겨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이 현실이 될 때,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
모~든 세상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그럼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 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라감으로써 동일하게 축복에 대해 죽어버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에요.
야곱은 다른 모습으로 축복에 대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축복을 쫓아갑니다.
쫓아간 결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해주면서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7장 7절에 '축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낮은 자요 이 세상에서 그동안 야곱이 추구해 왔던 모든 복을 다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이 순간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복을 쫓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이 세상적인 복을 쫓았지만, 그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마음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언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과 축복의 약속의 실현들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갑자기 나와요.
모세 부모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럴 때,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끄집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두려고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앞에 말한 축복이 방해가 되고 또 하나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내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모세 부모님들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3개월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기생 라합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두려움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강하고 담대 하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이 주제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근데 자기의 행동이 민족에게 걸리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방 양면으로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을 가만히 볼 때, 너무 두려워 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세상,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잘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마음이 보이는 현실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기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부터 시작되는 다윗과 사무엘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매달이 활화산, 하나님의 뜻의 마그마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과제에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야 된다는 게 과제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과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인가를 주시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동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이 돼야지, 땅에서 솟은 활화산이 되면 안 돼요.
땅에서 솟은 활화산이 뭡니까?
내 욕구와 내 바람과 내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어디까지 하느냐?
방황하고 유리하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으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목표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
내 몸이 톱에 켬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상실감 제로, 아~무것도 내가 잃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내 마음에 교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전체를 다 차지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 내 몸이 톱으로 켬을 당해 죽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게 목표에요, 목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상실감이 없는 평강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상태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예를 들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바라보기 위한 이유와 바라보는 포인트와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11장에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기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말씀이 단순한 구호나 아니면 당위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